

영광군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폐물’ 저장 반대”

국회 상임위서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특별법 논의 원전소재 지자체 공동 대응...지역대표 참여 보장 등 담은 건의서 제출

영광군이 주민 동의 없이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영광군은 군을 비롯,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관련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이란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 소재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 청소년문화축제 '미리 크리스마스' 지난 3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영광 청소년문화축제'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오하러 좋아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슬로건으로 30여명의 청소년 기획단이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11개 팀이 참여한 공연무대와 먹거리 부스 운영, 행운권 뽑기, 찰칵한 컷(코스튬 대여 및 기념사진 촬영),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디지털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영광군 제공>

신안 '은둔형 위기가구·거주불명자' 집중 발굴

군, 다음달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2000가구 일제 조사

신안군이 겨울철 한파 등으로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1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생활고를 비롯한 신촌 모녀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실거주지가 달라 발굴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

보료 및 공급금 체납자, 은둔형 위기가구, 거주불명자 등 약 2000여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서비스 등 공적자원을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에는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지원에 연

계하여 신속하게 지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구도 존재한다"며 "추위에 떨거나 밥을 굶는 주민이 단 한 가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는 선제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24시간 콜센터(국번없이 120) 혹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소외이웃에 '사랑의 김치' 1200포기



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새마을 회원·상근병 등 100명 참여

진도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5일 열린 봉사 활동에는 진도군 새마을 회원과 예비군 지휘관, 상근병 등 총 100여명이 1200포기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이들은 겨울 김장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달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특히 진도군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 회원들은 1200포기의 김장 진행을 위해 며칠 전부터 김치 양념을 만들기 위해 일손을 모았다. 진도군 새마을회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빨간 양념 범벅이 된 모습들이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 450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치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요즘에 봉사자들의 정성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균형발전' 우수사례 퍼플렛 일원 공원조성 '성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시상식에서 신안군은 최근 글로벌 관광지로 떠오른 안좌면 퍼플렛 일원에 추진하였던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정비, 일주도로 개설, 주차장 정비, 문브릿지 설치, 숲길 및 공원조성, 포토존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안군은 전남 지역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하였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최미순 안좌면 이장협의회장은 민간부문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수상단 제장 및 관계공무원 약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호남에선 유일하게 '퍼플렛! 낙도(樂島)로 변화된 모습 보라해!!'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하여 성공 노하우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편 신안군의 퍼플렛은 2018년부터 시작된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독특한 이곳만의 차별화한 관광전략이 홍콩,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를 넘어선 글로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퍼플렛을 찾는 관광객은 2018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94만명, 주말 평균 약 2000명 이상 방문하였고, 18억의 입장료 수입, 지역일자리 54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으로 제2, 제3의 퍼플렛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혜택 많은 공공배달앱 '떡깨비' 쓰세요

목포시, 광고비 무료·중개료 저렴·각종 할인 등 이달까지 집중 홍보

목포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전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떡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 이익, 소비자는 착한 소비'라는 비전으로 지난 7월 출시한 '떡깨비'는 민간업체인 ㈜떡깨비가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앱 이용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도 받고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떡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평화광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60여개를 게시했다. 이와 함께 전단지 3만장을 23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외식업 목포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연맹 등에 배부하는 한편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해 '떡깨비'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특히 배달앱 주요 이용자인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高)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떡깨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떡깨비 가맹점 신청은 떡깨비 홈페이지, 업주용 '떡깨비 사장님' 앱, 떡깨비 고객센터(1644-7817)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이나 '떡깨비'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연말 맛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내년 1월까지 월 최대 5만원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면서 연

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위축된 소비경제가 회복되어 경영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됨에 따라 상승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어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초당대·목포대 앞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무안군, 승객 안전·기후변화 대응 냉·난방, 공조시스템 등 갖춰

무안군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건너편에 설치해 운영한다. 무안군은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더불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초당대학교에 1개소 시범 설치했으며, 학생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확인돼 11월 중에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군에서 설치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방기와 실외기, 공조시스템 등 각종 스마트 설비를 일체형 모듈에 통합한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연감시가 용이하게 한 형태의 버스승강장이다. 설계단계부터 각종 스마트 설비를 버스승강장에 내에 통합 설치해 전선이나 틈새 공간의 노출 없이 마감대 다른 도시의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승객과 보행자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고려해 밀폐공간과 개방공간이 함께 있는 버스승강장을 채택했다. 김산 군수는 "더위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휴대폰 와이파이 구축 및 충전 등 통신편의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추가 설치해 청년도시



스마트 무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